



消防의 날」制定과 「消防 캠페인」에對한思考

崔

今

成

(韓國消防學會會長)

① 「매너리즘」에 빠진 感을 느끼는
防火強調週間

政府는 1976年 11月 1日을 期해 每年 11月 1日을 「消防의 날」로 制定公布하였다. 消防의 날 制定은 우리나라 國民生活의 急速한 近代化, 經濟의 高度成長에 隨伴한 都市建物의 高層化, 生產工場等의 急激한 增加等, 그리고 油類의 使用增大 등등 火災 發生의 樣相增幅이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 이때 意義깊게 생각한다.

그동안 消防當局은 『火災시이즌』인 季節이면 『불조심캠페인』으로 「防火」에 對한 「포스터」配布, 불조심 雄辯大會, 兒童들에 대한 불조심 寫生大會, 불조심 標語및 「포스터」書藝展示會, 防火啓蒙을 為한 演劇等 여러가지 行事を 벌이는 등 불조심啓蒙을 為해 通例的인 行事を 展開하였다.

그러나 30여年을 매년 되풀이한 이 같은 行事는 行事로서만 그친감이 없지않아 있었다. 이러한 때 政府가 「消防의 날」을 제정한 것은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못 의의 깊은 일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行事が 그려하였듯이 「消防의 날」제정이 消防當局이나 一般國民의 立場을 떠나, 行事에만 局限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다. 우리 모두 이러한 行事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消防의 날」제정에 맞추어 보다 진취적이고 거국적인 행사가 되도록 정부는 물론 온 국민이 이에 참여하여 이 行사의 의의를 살려 나가야할 것이다.

「매너리즘」이란 一定한 形式이 惰性的으로 每年같은 方式의 行事が 되풀이 됨으로 하나의 型에 박혀 獨創性과 新鮮味를 落失한 것 같은 「불조심」強調週間의 消防行事를 말함이다.

② 雄壯했던 지난날의 「불조심 強調週間」

8.15 解放後 美軍政當時 消防이나 우리나라 政府樹立 직후 당시의 消防當局이 展開했던 『불조심 強調週間行事』는 지금의 消防當局이 展開하고 있는 『캠페인』보다 確實히 雄壯했던 것으로 記憶된다.

當時 市廳會議室이나, 或은 鍾路和信百貨店에서 防火「포스터」 및 불조심 標語書藝展을 大大的으로 展示했는가 하면 明洞市公館에서는 全國著名演藝人들이 出演하여 消防官의 生活이나 『불조심 啓蒙』으로 構成된 演劇을 一般市民에게 公演했던 時代가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政府側에서 關係長官이 『불조심 啓蒙』에 대한 談話文의 發表, 或은 消防기구 성능 試驗光景을 直接參觀하여 그 生產을 嘉獎해 주는 等, 상당히 華麗하고 무게있는 「불조심 啓蒙週間行事」를 展開했던 일들이 생각난다.

最近 우리나라 消防도 從來의 警察傘下에 隸屬했던 時節과는 달리 日本이나 美國消防水準에 到達코자 全能力을 傾注研究 向上하고 있는 모습을 엿볼 수 있어 消防近代化의 目標達成이 눈앞에 보이는 듯하다. 우리모두 過去先輩들이 展開했던 防火「캠페인」보다 飛躍된 「불조심」強調週間計劃이 樹立 展開되어 주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다.

여기에는近代化된 消防「캠페인」의 研究가 重要的問題의 하나라고 본다.

最近 日本이나 美國에서도 對民防火思想啓蒙과 能率의 「불조심」週間行事에 대하여 많은 研究를 거듭하고 있다고 한다.

(3) 世界에서 가장 온랜 歷史를 가진 美國의 「불조심」強調週間의 由來

每年 10月이면 展開되는 美國 防火週間行事가 全國的으로 展開하기始作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인 서기 1871년 10월에 發生한 「시카고」市 大火災事件(3일간 延燒 1萬 7千餘棟에 達하는 建物을 燃失케하고 死亡者 25名,

2萬名以上이 負傷을 당했으며 統計上으로 10萬名以上이 家庭을 잃은 大火災였음)이 始機가 되었다.

當時 大統領은 峻嚴한 聲明을 發表하여 『불조심 啓蒙』問題를 全國民에게 強調하고 이에 적극 參與하여 줄것을 促求하여 온 국민의 真切적인 호응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러나 100年이 경과한 지금의 美國에서는當時의 「불조심 啓蒙」行事에서 보여준 國民의 적극적인 모습은 어느州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며 全國的으로 聯邦政府에서 指示하는 每年 二回의 「불조심」 啓蒙行事도 每年 增加하는 火災에는 아랑곳 없이 形式만으로 끝나는 州들이 許多한 모양이다.

모든 것이 그러하듯 어찌한 行事도 長久하게 되면 惰性的으로 빠지기 쉽다. 美國과 같이 先進國도 예외가 될 수는 없는가 보다.

國防 다음가는 次元을 지닌 國民의 生命과 財產을 保護하는 消防, 우리는 『불조심 強調週間』이나, 새로이 制定된 『消防의 날』行事등이 이러한 『매너리즘』에 빠져서 한낱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되겠다.

④ 「불조심」強調週間行事는 「불조심」 포스터, 標語부터 새로이 했으면?

「불조심」強調週間의 行事는 一般國民들이 불 때 하나의 精神運動偏重인 感을 느끼는 모양이다.

이것은 每年 「防火週間行事」때면 登場하는 「標語」에도 나타내고 있다. 6.25 事變前에 消防當局에서 選定한 標語를 보면 「불조심 내가 먼저」 「꺼진 불도 다시보자」 「자나깨나 불조심」 삼천만이 불조심」 等等 國民에게 共感을 주는 표어가 많이 나붙었다.

당시의 「불조심」 포스터는 다른 나라의 「포스터」와는 좀 다른 참신한 맛을 풍겨주었을 뿐 아니라 우리들 國民성과 符合되는 標語로서 크게 脚

光을 받기도 하였다.

消防과 함께 30餘年間을 生活해온 筆者로서는 「불조심」啓蒙을 爲한 防火「포스터」에 대해 서는 格別한 各味를 가지고 있어 국내에서는 勿論 外國에서도 每年 展示하는 防火「포스터」에 커다란 關心을 갖고 있다.

日本 東京消防廳에서 每年 發表하는 防火 啓蒙「포스터」標語를 보면 「담배불의 溫度는 700度」「우리의 生活에서 불 안내는 研究」「담배는 “재떨이”가 있는 곳에서」「이웃과도 소리외쳐 協心해야 할 防火」「煙氣는 당신보다 빠르다」「生活의 一部로하자, 불 點檢」「家計簿 쓰는 그 손으로 “불단속”」等은 우리들이 피부로 느낄만한 標語들이 있다.

또한 美國標語를 보면 (NFPA 1970 年度分) 「불을 사랑하자!」「불을 소중히 다루자!」라는 것 등도 있다.

美國防火協會의 이러한 표어들은 사랑하면 소중히 생각하고 또 取扱에서도 주의를 기울인다는 意味에서 사랑하는 愛人과 같이 다루어 火災를 未然에 防止하자는 뜻에서 防火強調週間「포스터」로 選定했던 모양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때 “불조심啓蒙”에 適合한 標語라도 똑 같은 표어나 포스터를 매년 똑같이 내 놓으면 啓蒙의 인 測面에서 커다란 實效는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한다.

消防問題와는 조금 다른 部門이긴 하지만 「經濟速度 40K」와 「兒童이 뛰어 나온다! 速力を 낮추어라」등이 日本警視廳에서 당시 全國에 公募한 交通事故防止「포스터」현상모집에서 當選되었다고 한다.

當選作을 選出한 그 說明은 日本國의 石油危機를 利用하여 石油節約와 함께 自動車가 40Km速度이면 安全速度임을 들어 交通事故가 發生하더라도 大事故는 發生하지 않는다는 뜻이며 『兒童들이 뛰어 나온다! 速력을 낮추어라』하는 標語는 兒童들의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어로서 당시 많은 국민들로부터 크게 脚光을 받았었다

고 한다.

日本 警視廳 交通事故統計에 依하면 이 「포스터」가 全國에 數 10 萬枚가 住宅街 壁이나 電柱等에 붙여 놓은바 兒童들의 住宅街에서 發生하는 交通事故가 30%以上이나 減少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볼때 『불조심 啓蒙標語』도 實際의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나고 있느냐 하는것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防火週間行事를 充實히 施行하여 몇 %나 火災가 未然防止 되었으며 火災件數가 減少되었다는 數字나 計數로 具體의 인 統計를 내놓기는 無理한 일이다.

『絕對火災0%』 이것은 하나의 理想이며 바람일 뿐 實際의으로는 近世 文明國家로서는 無理한 것임은 틀림없다.

⑤ 建物 17,000棟을 燒盡케 한 美國 「시카고」市의 大火災原因은 소(牛) 가 쓰러뜨린 石油「램프」였다

前述한 바와 같이 완벽한 防火計劃과 火災敘는 社會建設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容易한 課業은 아니다. 石油貯藏所, 高層建物, 百貨店, 호텔 等의 防火對策을 徹底히 함으로서 어느 程度 전수를 출입할 수 있다고는 하나 散在해 있는大小規模의 工場, 密集한 住宅를 洗濯所를 爲始한 小規模의 商店들을 對象으로 確實하고 精密한 防火對策目標를 設定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이 問題는 建物의 構造, 取扱하는 引火物質의 種類, 其他等으로 火災發生의 原因도 多樣한 까닭도 있다.

最近 每年 發生하는 火災原因을 分析할때 過半數以上을 차지한 原因이 過失이라고 한다. 過失이란 不注意로서 始作한 것으로 그 結果를豫見도 推測도 못한다.

또한 人間의 不注意 즉 過失을 우리들 生活에서 영원한 追放은 있을 수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不注意는 비단 우리 韓國사람만이 지니고 있

는 缺點만도 아니다.

人間 모두가 이러한 過失은 언제든지 있게 마련이다. 美國「시카고」市의 建物 17,000棟을 燒失케한 大火災는 豐牛 오양간의 “소”가 石油「램프」를 쓰러뜨린 것이 火災原因이기는 하나, 페 립스에 石油「램프」를 놓고 나온것은 「사람」이었다. 即 한 사람의 不注意가 이러한 엄청난 事故를 發生케 한것이다. 그래서當時 美聯邦政府는『不注意란 敵은 火災의 原因을 만든다』라는 『防火 캠페인』을 大大的으로 展開한 바도 있다.

(6) 우리나라 大然閣호텔 火災事件은 NFPA에서 記錄한 世界大火災史의 한 「페이지」이다

우리나라 消防裝備 消防力등을 日本이나 美國과 火災件數 그리고 消防官 1名이 擔當하는 國民數를 計算하여 比較할때 우리나라 消行政은 優秀하다고 느껴진다.

그 理由인즉 不足한 裝備와 不足한 消防人員이 火災豫防과 火災鎮壓課業에 忠實함으로서 比較的 火災發生件數가 外國보다 많지 않다는 點이다. 그러나 世界火災歷史에 남은 1972年 12月 25日에 있었던 우리나라 大然閣「호텔」火災事件은 全世界消防人們이 지금도 머리에 記憶하고 있는 事件이었다.

1974年 筆者が 美國消防界를 観察中 「보스톤」市外 「콩코트」라는 작은 市消防署를 訪問할 機會가 있었는데 「콩코트」消防署는 1972年 즉 3年前부터 한 번도 火災現場에 出動한적이 없는 無火災小都市라 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더욱 놀란것은 「콩코트」消防署員들은 우리나라 大然閣에서 發生한 火災事件을 그 原因 火災現場現況 人命被害等 筆者도 記憶못할 細密한 内容을 記憶하고 있는데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美國의 어느 經濟學者가 말하기를 國家가 富強하고 文明된 나라 일수록 불을 많이 다룬다고 쓴 句節을 읽은적이 있다. 果然 지당한 理論이

라고 느껴진다. 그러나 “불” 즉 火災를 자주내는 나라가 文明한 나라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先進國들의 消行政은 그 課業이 「豫防이 70%」火災鎮火를 為한 「訓練이 30%」라고 發表한 指針을 들은일이 있는데 우리나라 消行政도 다른 先進國과 같이 70:30으로 하고있는 것으로만 안다.

⑦ 1年 365日 持續되어야 할 「消防의 날」或은 「불조심 強調週間」

每年 15日間의 「불조심 強調週間」이 끝남으로서 불이 안나는 都市形成이나 防火思想이 強한 國家나 國民이 될 수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建設이 모든 分野에서 飛躍的인 發展을 世界各國에서 注視하고 있는 가운데 차차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로지 消防分野만이 飛躍的인 發展을 못보고 踏步狀態에 머무르고 있는感을 느끼게끔 하는 理由가 那邊에 있는가?

우리 消防人們이 한번 深思熟考 해볼 問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불과 함께 生活하는 우리들로서 「消防의 날」이나 「불조심 強調週間」의 精神이나 注意力은 하루나 15日間이 아니라 1年 365日持續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불조심」을 해야 한다는 防火思想은 高層빌딩, 生產工場, 官公署, 學校, 住宅에 이르기까지 全國民이 生活化해야 한다고 보며 「火災가 적은 都市」防火思想이 徹底한 市民이 되도록 하기 위해 消防擔當官은 加一層 積極的인 對民啓蒙은勿論 科學的인 消行政에 對한 計劃이나 私見을 果敢하게 上部에 提示할 수 있는 勇氣가 消防近代화를 위하여 絶對 必要한 時機가 到來했다고 본다.

⑧ 消防近代化를 위한 時急한 宿題들

嚴한 消防法이 公布되었다고 해서 火災가 根絕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消防當局은 國民이 消防法을 遵守하게끔 指導와 啓蒙이 풍

임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消防當局 自體도 消防官의 質的向上과 消防行政을 履行하기 위한 科學의in 裝備 試驗設備를 具備 消防研究機關 創設等 그에 隨伴되는 許多한 課業目標를 忘却해서는 아니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現消防法은 日本을 爲始하여 先進國들이 公布한 消防法에 比해 조금도 遜色이 없는 法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問題點이 있다면 이 훌륭한 法을 遵守하는데 國民은 각자가 所有하고 있는 建物等에 完全한 防火設備를 위한 投資를 義務化하며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消防當局 역시 科學 消防 體制로 向上된 消防行政 課業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相當한 消防投資를 必要로 해야 한다고 본다. 이 問題는 日本이나 歐美 消防現況을 見學 或은 視察한 우리나라 消防人們이 切實히 느끼고 있는 宿題들이다.

지난 4月 韓國消防機具工業協同組合의 會員

社 15個業體 代表者가 日本의 消防現況을 視察한 結果 會合에서도 異口同聲으로 發表한 意見이 消防法은 日本과 조금도 遜色없는 韓國民에 適合한 法인데?」이 消防法의 遵守와 行政을 위한 모든 裝備 또는 施設等은 確實히 日本보다는 뒤떨어진 感을 결실히 느낀다는 이야기다.

그와 美國 重要都市나 日本東京都消防廳에 設置된 1個所設備當 40億(엔)이나 所要되는 「콤팍터」消防行政設備는 뜻할말정 消防官敎育養成을 위한 消防學校 或은 消防大學이나 消防機具機械向上을 爲하여 研究하는 消防研究所 消防機器專門檢定機關等은 現下 時急을 要하는 宿題들이라고 본다.

一方 이와같은 問題解決은 于先 優秀한 實務擔當 消防官들이 적극 先進國의 進步된 優秀한 行政局 또는 技術의in 面을 探究키 위해 見學이나 視察을 하게끔 하는點이 무엇보다도 消防近代化를 위한 지름길 이라고 生覺한다.

너도 나도 불조심

우리 모두 불조심